

대구주보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2020. 06. 28. (가해) 제2220호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마태 10,40)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호세 데 리베라, 1616년경,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자모이신 성 교회의 지극히 공경하올 교황성하께!



초전본당 주임 | 문봉한 야고보 신부

먼저 프란치스코 형제를 교황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두 손 들어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Viva PaPa! Viva Paco!

지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부름을 받은 한 분만이 설 수 있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위대한 교황님이 나아하께 모든 이의 기도를 청하면서 거룩한 직무를 시작하셨지요. 너무나 겸손하고 솔직해서 당신이 서신 발코니가 마냥 높으신 분의 자리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랑의 위엄이 흘러내리는 천상의 층계가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죄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도로 청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이의 모든 것인 착하신 주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서 희망을 받아안으며 한 마음으로 새 교황님을 위해 기꺼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날 이후 온 인류가 마주한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친구인 당신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희보다 한 발 앞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자본과 권력을 이용한 계략이 아니라, 자신을 순수하게 내어주는 사랑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 하느님의 사랑을 몰아낼 것처럼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는 날, 비에 젖은 성베드로 대성당 계단에서 홀로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던 당신에게서, 또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은 막연히 기대만 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성실히 준비하는 자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내리던 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공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예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늘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친구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황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들을 찾으라고 하셨지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없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 주지 않는 이기적인 변명에 불과함을 깨우쳐 주셨지요. 이렇듯 사랑의 산증인이신 당신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오늘 교황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신속하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친구이신 교황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겠습니다.

Viva PaPa! Viva Paco! **궤로**

우리의 소명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 나이를 1년으로 압축해서 보면, 1월 1일 우주의 탄생 이후 태양계는 8월 31일, 지구는 9월 10일경에야 등장합니다. 인류는 12월 31일 밤 11시 52분에 출현해, 11시 59분에 농사를 지으며 무리 지어 살기 시작합니다. 근현대사가 시작된 것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입니다.

이 우주력은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로 언급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인간의 특별함도 함께 봅니다. 인간은 138억 년 우주 역사 속에서 우연히 출현한 의미 없는 유기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은 우주의 새내기이면서도 온 우주를 마음과 상상력 안에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의식적인 계획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도 우리 인간이지요.

물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생명체들과 공통점이 많고 그들에 비해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지능으로 도구를 만들어 협력하고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유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생물종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대부분의 유전자가 같다고 하지만, 자기 유전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침팬지가 있을까요?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생태적 겸손을 요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

게 주어진 창조 세계에서의 각별한 위치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특별한 창조성을 부여받았고, “하느님의 협조자”로서 지구 공동체를 보존하고 돌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은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이 ‘생태적 소명’은 몇몇 환경운동가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입니다.

오늘날의 심각한 기후 위기를 보며 우리가 그동안 생태적 소명에 충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해치는 나쁜 바이러스이고 다른 생물종들에게 공공의 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고유한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망쳐놓고 회복하려 할 만큼 어리석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의 미래를 걱정하는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결함과 쉽게 잘못을 저지르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간은 자신을 성찰하고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존재입니다.” **궤**

치유에 이르는 기도 길잡이 **후회에서 벗어나기**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 안내

이 책은 후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 실제 사례,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고 신앙 안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미국 성바오로딸수도회 캐스린 J. 헤르메스 수녀가 마음 작업(Heart Work)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쓴 영성 서적이다.

많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반복하며 굳어진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으로 고통받으며 습관대로 행동한 뒤 후회한다. 이 책은 자신이 품고 있는 후회들과 이것이 쌓인 결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직면하도록 돕는다.

이 책의 장점은 고통스러운 후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와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후회 목록을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기도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 등이다. 필자는 이 과정을 거치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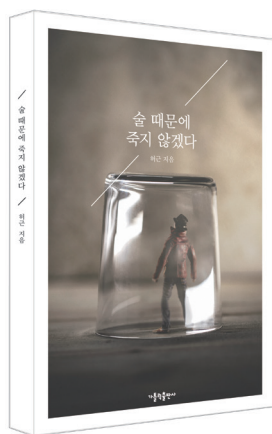
캐스린 J. 헤르메스 지음 | 배기선 옮김
256면 | 14,000원 | 바오로딸

알코올 중독의 실체와 극복 방법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도 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들을 '알코올 중독자'라 부른다. 이성으로 술을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질병의 문제를 짚어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알코올 중독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 줄 전문 상담과 영적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대교구 단 중독사목위원회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 소장 허근 신부가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을 위해 쓴 이 책은 알코올 중독의 실체와 극복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답이 되어 줄 것이다.

술독에 빠졌다가 구원된 여러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중독 치료와 함께 이루어지는 영적 치유와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거나 전문 치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줌과 동시에 치료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허근 지음
220면 | 14,000원 | 가톨릭출판사

이양등 베드로(?~1868년), 김종륜 루카(1819~1868년), 허인백 야고보(1822~1868년)



이양등(李陽登) 베드로는 경상도 울산의 죽령 교우촌(현 경남 울산시 상북면 이천리) 회장이었다. 본래 성품이 선량하였던 그는 꼴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수계 생활을 하였다.



김종륜(金宗倫) 루카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 충청도 공주에서 천주교에 입교한 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본관은 경주요, 족보 이름은 '경희'(敬熙)이다. 김 루카는 평소에 특히 화목함을 강조하였고,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다.



허인백(許仁伯) 야고보는 1822년 경상도 김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언양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러다가 24세 때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입교하였으며, 이후로는 아주 열심히 수계 생활을 하여 교우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야고보는 아내 박조예와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다. 그뿐만 아니라 정결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남매처럼 살았으며, 고신극기는 물론 겸손과 인내의 덕을 쌓는데도 노력하였다. 또 애궁에 힘써 가난한 이와 병든 이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1866년의 병인박해를 피해 죽령 교우촌으로 이주하여 만나게 된 이양등 베드로와 김종륜 루카, 허인백 야고보는 서로 권면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때까지도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였다. 그러나 2년 뒤인 1868년에는 포졸들이 마침내 죽령 교우촌을 찾아내게 되었고, 이 세 사람은 얼마 안 되어 다른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는 몸이 되었다. 이때 허인백 야고보는 가족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성녀 바르바라의 순교 행적을 기억하도록 하거라.”라고 당부하였다. 경주로 압송되어 가는 동안 이양등 베드로, 김종륜 루카, 허인백 야고보는 동료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 순교를 결심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경주 진영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증거하였다.

이어 베드로와 루카, 야고보는 동료들과 함께 울산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당하고 신앙을 증거한 뒤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다음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 현 경남 울산시 병영동)로 끌려나가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8년 9월 14일(음력 7월 28일)이었다. 순교 당시에 그들은 십자 성호를 긋고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하며, 시신은 형장까지 따라온 허인백의 아내 박조예에 의해 거두어져 비밀리에 안장되었다.

세 분의 유해는 지금 대구대교구 복자성당에 모셔져 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2열왕 4,8-11,14-16	제2독서	로마 6,3-4,8-11	복음	마태 10,37-42.
화답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울지마톤즈〉 후속 영화

〈부활〉

7월 9일 대개봉

세계를 감동시킨 〈울지마톤즈〉 구수환 감독 작품

자신의 삶을 태워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힌 사람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헌신하다 마흔 여덟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
십년 후 그분의 사랑으로 자란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
의사·약사·공무원·의대에 다니는 제자만 40여명.
놀라운 것은 모두가 이태석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활〉은 이태석 신부님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그분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미래를 말하는 영화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우리 또한

박성규 엘리지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매주 둘째주 일요일
장소: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대전 분원
문의: (010)8683-6848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초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2020년 6월 28일

교황주일

오늘은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7.5(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만 35세
문의: (010)9937-0901

청년 마르코 복음 통독 피정

일시: 7.11(토) 9:3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과동)
문의: (010)9861-6691

베네딕도영성관 피정

하느님 찾는 여정: 7.18(토)~19(일)
예수 기도: 7.24(금)~26(일)
서간 통독: 7.30(목)~8.2(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문의: (010)7103-3425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피정
(권민자 수녀)**

1박 2일: 7.4~5
3박 4일: 7.9~12 / 7.27~30
8박 9일: 8.5~8.13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정의집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팔각역 4번 출구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점상자 맞은편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경북시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씩**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원국(비오) 721-8879 (발발 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방향 500m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동언(베드로) 신부
1981년 7월 2일
- 김영옥(요한) 신부
1996년 7월 4일
- 이종필(마티아) 신부
1954년 7월 4일

교육 | 모집 | 기타

청년국 음악팀 노엘 단원 모집

찬양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분야: 키보드,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음향, 영상 편집, 프로그램 기획
문의: 교구 청년국, (010)2574-8770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모집

전입학 설명회: 7.4(토) 14:00
여름진학캠프: 8.7(금)~9(일)
대상: 초6~중2 / 문의: (054)338-0530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 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정부지원사업비 연간 약 250억원
학생의 미래에 투자하는 대학
가톨릭추천전형 31명 / 문의: 850-2580

2020 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7.6(월)~15(수)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안내, 도서,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문의: 650-4442 / (010)2586-4442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 주말

색신 주말: 7.25(토)~26(일)
7월 ME 주말: 7.31(금)~8.2(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7.24~26 / 7.28~30 / 8.7~9
장소: 제주성지 7곳(성지해설)
지도: 안성철(마조리노) 신부(바오로수도회)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890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원서접수: 8.17(월)~28(금)
설명회: 7.11(토) 14:00, 시청각실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주최: 사랑의씨튼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문의: (061)432-9241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용평마을 무료양로원 입소어르신 모집

대상: 해준 밥 드시고 싶은 어르신,
말벗이나 친구가 필요한 어르신,
노후의 편안함을 즐기고 싶은 어르신
주소: 영천시 화산면
문의: (054)334-2006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채용 | 안내

가톨릭피부과의원 피부과 전문의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문의: 320-2121 / (010)6653-8022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평규, 조성제(베네딕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기백한의원
허리, 어깨, 손발저림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위혁익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근 마우구스티노
하마 의사의 건강멘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철로)
송 정 애(안철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님)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외 이수윤(소피아), 홍정홍(대천안드레이)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갯마을병원
의사와 환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053)670-6000